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\*\***

**ㆍ토요기도회:**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

**ㆍ난민후원 바자:**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.

**ㆍ제직회:** 오늘 2부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

**ㆍ어린이 여름캠프:** 7월 20일(목)~22일(토)Jugendheberge Neuss-Uedesheim

최종 준비 모임: 7월 18일 16:30

**ㆍ별세:** 김한진 장로 어머니 강순임 님(6월 19일, 87세)

**ㆍ지난 주 방문:** 김영은, 이석호

**ㆍ한국 방문**: 정주애

**ㆍ생일:** 정주애, 이한나

**ㆍ손교훈 목사:** WCRC(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온) 총회 중 남북교회 만남 및

루터 500주년 기념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독일교회의 연합 행사 참석

**◆ 말씀일기 일정**

일/왕상21:1-10 월/왕상21:11-29 화/왕상22:1-14 수/왕상22:15-28

목/왕상22:29-40 금/왕상22:41-53 토/갈라디아서1:1-10 일/갈1:11-24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&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35독)**

**◈예배위원 안내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7월 2일** | **7월 9일** | **7월 16일** | **7월 23일** |
| **예배기도** | 정정아 | 이은지 | 임선향 | 정수연 |
| **말씀일기** | 김다니엘 | 정정아 | 김평님 | 백윤정 |
| **안내위원** | 정기승, 예배부 | | | |
| **헌금위원** | 이미전, 이은지 | | | |
| **애찬봉사** | 밥상 여섯 | 밥상 일곱 | 나라주일 | 밥상 하나 |

35-27호 2017년 7월 2일



**“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"**(롬 1:17)

주일 1부예배: 12:15

주일 2부예배: 14:00

주일 유초등부 예배: 14:00

주일 청소년부 예배: 14:00

토요기도회: 07:00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**담임목사/ 손교훈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협동목사/ 이광열** Mike Lee

☏ 0211-4166 3284 HP. 0157-7388 7498

**교육목사/ 이재용** HP. 0157-5346 6942

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 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/Eingang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송영/Eingangs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찬양대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4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 53번 ………………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......………… 304장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유근임 집사 |
| 말씀일기/Bibeltagebuch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성경봉독/Text zurPredigt …............…마태20:1-16 …..….....……..….…..... | 김종필 집사  다함께 |
| 찬양/Loblied 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…………… | 찬 양 대 | |
| 설교/Predigt …………………… **하나님 나라5-*공평*** .........……… | 손교훈 목사 |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......………………… 310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봉헌/Kollekte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  다 함 께  다함께 |
| 교제와 나눔/Bekanntmachung ……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인 도 자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
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

**◈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-갈1장 ‘다른 복음’ ◈**

바울 사도는 12사도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, “유대교를 지나치게 믿”(14)었던 사람이다. 그래서였을까? 복음에 다른 인간적인 그 무엇, 즉 인간의 공로나 율법, 전통들이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걸 참을 수 없었다. 마치 술을 심하게 마시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절대 술을 먹지 않듯이, 율법 중독자였던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.

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, 너무 철저해서 깐깐하고 재미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.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기에, 복음의 핵심인 생명, 자유와 변화를 끝까지 가슴에 끌어 안고 갈 수 있었고, 그랬기에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,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의 순수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간 것이 아닐까?

오늘날 바울이 살아 있다면 어떨까? 복음을 빙자한 수 많은 “다른 복음”(6, 7, 8, 9)들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지 않았을까!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경우, 바울은 2000년 전 당시와는 거꾸로, 은혜를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한 가짜 복음들을 가려내며, 수 많은 냉정한 메시지들을 보내야만 하지 않을까 싶다.

한편, 누가 나를 또 다른 복음의 소유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.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다. 어쨌든 다른 것은 몰라도, 복음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. 자칫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람들의 기쁨만이 상전을 차지해서는 곤란하다. 십자가는 희미하고 면류관만 반짝거려서는 안 된다.

내가 진짜 답답한 것은, 많은 이단 내지 사이비 신자들 대부분이 깊은 내적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고, 교회 내에도 그와 유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다.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, 교회 및 선교의 이름으로, 은혜와 믿음, 그리고 자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고집과 편견, 오만이 되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. 정말이지, 내 믿음이 주님께서 온 몸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!

**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◈**

▶스펙트럼 교회(이광열 목사)

▶'겨자씨' 모임(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)

▶NRW 평신도연합회

▶유럽 기독교교육원: 어린이 연합 캠프, 청소년 연합 캠프(JC)

▶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(이명선 총무)

▶유럽 코스타(청년수련회) ▶유럽 크리스찬 신문(이창배 목사)

▶예장 유럽선교회 ▶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

▶장학 지원 ▶북한 선교 ▶디아코니 협력 후원

▶굶주린 이웃 돕기 (케냐 총게노 고아원, 이은용 선교사)

▶기타 구제 사업 ▶선교관 기금 마련